

심 사 보 고 서

【남양주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】

의안번호
206

2023. 7. 14.
복지환경위원회

1. 심사결과

- 가.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: 2023. 7. 5. / 박윤옥 의원 등 12명
- 나. 회부일자 : 2023. 7. 5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3. 7. 14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남양주시 소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근무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남양주시 노인, 장애인, 어린이 등의 돌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, 정의, 대상,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 (안 제1조부터 제5조)
-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함 (안 제6조부터 제7조)
- 지원사업, 인권옹호 등에 대해 규정함 (안 제8조부터 제9조)
- 협력체계 구축, 표창,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함 (안 제10조부터 제12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조공선)

-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 소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근무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 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안건으로
- 돌봄노동자 안전 및 인권에 대한 침해사례 및 통계가 발표되고 있는데 2021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'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' 보고서에서 가구방문 노동자 72.4%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, 응답자의 22.4%는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우울 증세를 보였으며,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41.0%였고, 최근 1년 내 그러한 생각을 한 응답자도 20.3%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으며,
- 이외에도 2021년 4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645개소 종사자(전담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)를 대상으로 이들이 경험한 안전 위협 사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확인된 사례 총 140건 중, 악성 민원이 38건으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으로 언어·정서적 폭력 36건, 성적(性的) 폭력 29건 순으로 나타났으며,
- 방문돌봄종사자는 취약계층의 안전 보호 및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므로, 이 과정에서 종사자의 안전이 소홀히 쉬우며,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긴 감정 노동, 직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 다양한 정신질환을 경험하기도 하며, 무엇보다 폭언, 폭행, 성희롱 등이 만연한 것으로 알려짐.
- 본 조례안을 통해 안전을 위협받고 인권침해를 받기 쉬운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가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될 것이며, 권리 보장 및 처우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·답변요지 :

○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『원안가결』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 음